

제212호 (2009. 6. 22)

■ 경제 동향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세

■ 정책·경영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 방안

■ 정보 미당

- 주요 기관들의 2009년 국내 경제 전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강·하천정비사업의 논쟁과 투쟁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세

-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금융위기 직전의 97% 수준 회복 -

■ 아파트 전세가격 4개월 연속 상승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0.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함.
 - 수도권은 서울, 경기에서 4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0.5%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은 강서구, 서초구, 광진구, 중구, 강동구, 송파구에서 경기도는 성남, 의왕, 용인, 과천 등에서 전월 대비 1.0% 내외의 지속적인 상승률을 나타냄.
 - 지방은 부산, 대전 등에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기타 시군구지역에서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규모별로는 금융 위기 직후 3개월(2008년 4/4분기) 동안은 85㎡ 이상의 전세가격지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최근 3개월의 상승률은 60~85㎡에서 크게 나타남.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전기 대비)>

(단위 : %)

지역	2008						2009				
	1/4	2/4	3/4	4/4			1/4	2월	3월	2/4	
				10월	11월	12월				4월	5월
전국	1.2	0.8	0.4	-0.7	-1.3	-1.6	-0.7	0.3	0.3	0.5	0.5
서울	1.3	0.7	-0.5	-1.4	-1.9	-2.1	-0.3	0.8	0.5	0.7	0.8
인천	0.8	2.1	3.8	0.3	-0.9	-0.9	-1.0	-0.5	-0.3	0.0	0.2
경기	1.5	0.7	0.3	-1.0	-1.8	-2.5	-1.4	0.3	0.6	0.8	0.7
부산	1.5	0.9	1.2	0.5	0.1	0.0	0.0	0.1	0.1	0.1	0.2
대구	0.2	-0.3	-0.7	-0.8	-1.3	-1.6	-1.3	-0.7	-0.5	-0.2	0.1
광주	0.9	2.0	0.8	0.1	-0.1	-0.3	-0.4	0.0	0.0	0.1	-0.1
대전	1.3	1.4	2.4	0.6	0.0	-0.2	-0.2	0.2	0.2	0.4	0.3
울산	-0.2	-0.8	-0.8	-0.4	-0.6	-0.7	-0.5	-0.1	0.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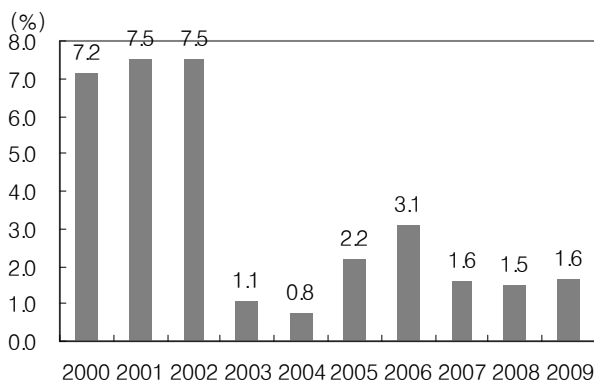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주)

■ 계절적 수요, 금융위기 회복, 입주물량 조정 등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 견인

- 올 1/4분기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은 겨울방학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이사철(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반적 현상
 - 2000년 이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5월에는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한 2~5월에 대부분 1.5% 이상의 누적상승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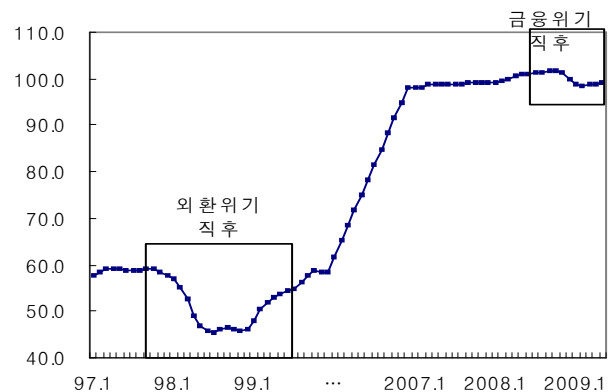
- 2009년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최근 3년(2006~2008년) 수준으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의 상승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지난해 금융 위기로 인한 일시적 전세시장의 충격과 회복 과정에 따른 구조적 상승
 - 외환 위기 직후 전세가격지수는 58.5(1997.11)→45.8(1998.11)까지 1년 동안 하락했다가, 다시 1년여 만에 58.5(1999.12)로 이전 수준을 회복함.
 - 이번 금융 위기에는 101.6(2008.9)→98.5(2009.2) 5개월로 짧은 하락기를 거친 후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2000년 이후 2~5월 아파트 전세가 누적 상승률>



자료 : 부동산114(주)

<금융위기 후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추이>



자료 : 국민은행

- 대단위 입주 물량의 조정에 따른 전세가격 회복 효과
 - 주요 상승 지역을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자이(3,410세대), 강남구 힐스테이트(2,070세대), 강동구 강일지구(5,020세대), 송파구 장지지구 및 재건축 완공단지, 성남시 판교, 과천시 레미안 슈르(3,143세대), 의왕시 래미안 에버하임(696세대) 등임.
 - 이들 지역은 대단위 입주 물량으로 인해 일시적 초과 공급 상태로 가격이 하락했다가 입주 물량이 해소되면서 다시 가격이 금융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 중

<주요 지역의 평당 전세가격 변화 추이>

(단위 : 만원/3.3㎡, %)

구분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과천	의왕
금융위기 이전(최고)	868	567	713	764	451
2008.12	785	502	635	631	408
2009.5	822	542	732	804	421
회복수준	94.7	95.6	102.7	105.2	93.3

자료 : 부동산114(주)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 5대 핵심 과제

- 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
 - ①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m₃, 2016년 10억^m₃)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총 13.0억^m₃의 수자원 확보
 - ②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통해 홍수조절 용량 9.2억^m₃ 확보
 - ③ 2012년까지 4대강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mg/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 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 복원
 - ④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이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
 - ⑤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 도모

■ 사업의 종류

-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함.
 - － 본사업은 수자원 확보·홍수 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 －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
 - －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로 시행

■ 본사업 내용

- 총사업비는 16조 9,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준설 등 하도정비와 송리원댐 등 신규댐 건설 등을 포함
 - － 전체 사업비의 57.7%에 해당하는 9조 8,000억원이 낙동강 수계에 투입되고, 영산강에 2조 6,000억원(15.6%), 금강 2조 5,000억원(14.6%), 한강에 2조원(12.1%)을 투입할 계획

- 준설 물량은 5.7억m³으로 전체 사업비의 30.4%에 해당하는 5조 1,600억원을 하도정비 사업에 투입하고, 생태하천 537km 조성에 2조 1,800억원(12.9%), 농업용 저수지 87개소 증고 등에 2조 1,500억원(12.7%) 투입

< 본사업 주요 내용 >

구분	사업	사업비(억원)	물량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국 토 부	준설	51,599	5.7억m ³	0.5	4.4	0.5	0.3
	보	15,091	16개	3	8	3	2
	생태하천	21,786	537km	127	213	124	73
	제방보강	9,309	377km	75	214	71	17
	댐, 조절지	14,841	5개	—	3	—	2
	자전거길	1,409	1,206km	189	549	248	220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21,515	87개	12	31	30	14
환 경 부	수질개선	5,000	353개	106	124	99	24
총 사업비		169,498		20,435	97,875	24,727	26,461

■ 직접 연계사업 내용

- 직접 연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5.3조원인데, 이 중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 개선 사업에 약 2/3에 해당하는 3.4조원을 투입하고, 섬진강 및 주요 지류 국가하천에서 생태하천 392km, 제방보강 243km 등을 추진하는 데 1.7조원을 투입

< 연계사업 주요 내용 >

구분	사업	물량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국 토 부	생태하천	392km	66	194	75	57
	제방보강	243km	56	121	46	20
	자전거길	522km	116	194	—	212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9개	—	—	—	9
환 경 부	수질개선	1식	1식	1식	1식	1식

■ 연계사업 내용

-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별로 수립할 계획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4대강 유입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국토부 및 방재청), 금수강촌 만들기(농수산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문화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 방안

■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실시
 - －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 공사(229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로 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 연내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모든 일반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40%로, 턴키공사는 최소 참여비율을 20%로 할 예정
- 이상의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개정안 내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해, 4대강 사업의 입찰을 마무리하는 2010년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제일몰제의 적용을 검토
- 정부조달협정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국제입찰 대상인 229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 건설업자에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 4대강 사업을 따라 건설업체의 빈번한 이동 등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 가능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로 자격 제한

■ 다양한 발주 방식을 동원

- 지자체 위임·위탁 발주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동원할 계획
 - － 지자체 위임·위탁 발주 : 일관적·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
 - － 턴키 발주 : 보 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턴키방식으로 발주
 - － 분할발주 : 구간별 특성,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공구를 분할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턴키는 27개 공구, 일반공사는 약 70개 공구로 구분할 것으로 알려짐.
 - － 분리발주 :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 환경영향평가 및 공사중 환경 관리

- 환경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

-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는 등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 중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함.
 - 수질TMS망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방제 시설을 설치하고, 지자체, 하천 공사 업체 근무자에 대한 유형별 사고 예방 교육 및 사고 발생시 초동 방제요령 등 지원
- 공사 중 부유토사 발생 최소화 대책
 - 선박 준설의 경우에는 진공흡입식 준설 등 탁수 최소화 공법을 활용하고, 갈수기 등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가물막아·우회수로·임시제방·오탁방지막·침사지 등 설치

■ 준설토 처리

- 총 준설물량은 약 5.7억 m^3 이며, 이 중 골재(모래)는 약 2.6억 m^3 (46%), 사토는 3.1억 m^3 (54%)으로 추정
 - 모래는 충분한 적치장을 확보하고 수급 조절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매각
 - 사토는 주변 산업단지 등에 매립하거나, 상습 침수지역 및 농경지의 성토에 활용

■ 추진 일정

- 본 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이 달 중 발주준비를 하여 하반기에 1차·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발주
 - 터키공사 : 1차는 6~7월에 발주, 10월 착공
2차는 올 10월 발주, 내년 2월 착공
 - 일반공사 : 1차는 이달에 설계발주, 오는 11월 착공
2차는 올 11월 설계발주, 내년 3월 착공
-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완료
 - 지류, 댐·저수지 등은 2012년에 사업 완료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도 2010년 까지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은 7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초까지 완료 예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은 178 km^2 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는 2년간 영농비를 지급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올 한국 경제성장률 -2%대”

- 주요 기관들의 2009년 경제 전망, 정책 효과 유지 및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의 관건 -

■ 세계 경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으나 여전히 불안요인 존재

- 2009년 세계 경제는 상반기 경제 침체폭이 하반기 들어 소폭 완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플러스 성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만·관 합동 투자프로그램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위험이 완화됨. 그러나 실물경기 침체로 일반은행과 금융권의 실적 악화,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화 등으로 하반기 금융시장이 일부 불안할 전망이다.
 -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 경기침체 정도가 심각, 서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독일의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며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
 - 영국의 재정 악화와 금융 위기 가능성 또한 하반기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임.

■ 국내 경제, 여러 긍정적 지표로 인해 경기 저점 여부에 주목

- 국내 경제 1/4분기 침체폭이 확대, 2/4분기 들어 실물경기 하강세 둔화
 - 1/4분기 GDP 성장률 -4.2%로 지난 2008년 4/4분기의 -3.4%보다 침체폭이 확대됨.
 - 그러나 지난 3월 1,590원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5월에는 1,250원선까지 하락하는 한편, 주가지수도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400선을 회복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임.
 - 재고 감소로 광공업생산지수가 지난 1월 93.9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 4월에는 115.8을 기록. 소비재판매지수도 1월 93.2를 기록한 이후 4월 114.5를 기록하는 등 생산과 소비가 점차 회복됨.
-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긍정적인 신호 발산,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
 - 통계청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4개월만에 반등하여 3월과 4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현함.
 - OECD의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중 한국의 지수가 지난 2008년 10월 바닥을 찍고 4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함. 회원국 중 회복시기가 가장 빠르고 상승폭도 두드러짐.

■ 정책 효과 유지 및 수출 회복세 지속 여부가 경기 회복의 관건

-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함.
 - 선행지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08년 11월 긴급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결과이며 특히 많은 예산이 SOC 토목공사에 집중됨.
 - 상반기 SOC 예산 집행이 70%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확대 효과가 상반기에 치중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 재정 투입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이 수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음.
- 하반기 유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시장 불안 등 몇몇 불안 요소 존재
 - 국제 유가가 4월에는 배럴당 50달러 내외를 보이다가 6월 초 70달러까지 단기간 상승하였는데 유가가 8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경우 하반기 내수 회복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 하반기 환율이 대략 1,150원대로 예상됨. 수출 회복 기조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결국 국내 경제는 2/4분기 저점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3/4분기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고 4/4분기에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하여 연간 -2% 초·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주요기관의 2009년 경제 전망>

(단위 : %)

발표기관	구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실업률
한국경제연구원 (3월 31일)	상반기	-5.3	-5.3	-2.3	-17.6	-14.3	-19.8	3.0	3.7
	하반기	-2.1	-2.5	0.0	-4.4	-5.0	-4.7	1.9	3.5
	연간	-3.7	-3.9	-1.1	-11.2	-9.7	-12.4	2.4	3.6
한국은행 (4월 10일)	상반기	-4.2	-4.1	0.4	-22.7	-14.9	-16.5	3.3	3.7
	하반기	-0.6	-1.0	3.1	-13.0	-4.7	-5.0	2.2	3.4
	연간	-2.4	-2.6	1.8	-18.0	-9.9	-10.9	2.7	3.6
금융연구원 (4월 28일)	상반기	-4.3	-4.3	0.6	-23.1	-15.2	-16.8	3.3	3.7
	하반기	-1.2	-1.8	2.8	-15.2	-6.3	-6.9	2.0	3.5
	연간	-2.8	-3.1	1.7	-19.3	-10.2	-12.0	2.6	3.6
KDI (5월 13일)	상반기	-4.2	-4.0	1.8	-22.6	-26.5	-31.5	3.4	3.8
	하반기	-0.4	0.2	2.8	-8.5	-8.5	-13.0	2.2	3.7
	연간	-2.3	-2.0	2.3	-16.0	-9.8	-10.0	2.8	3.8
삼성경제연구소 (6월 3일)	상반기	-4.3	-4.3	1.8	-22.8	-10.4	-17.9	3.5	3.8
	하반기	-0.7	-1.4	3.3	-7.5	-3.0	-1.2	2.2	3.6
	연간	-2.4	-2.8	2.6	-15.3	-6.7	-9.7	2.8	3.7

자료 : 각 기관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15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문
6. 18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회의에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6. 19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환경관리비제도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의에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환경관리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관련 자문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회의에 왕세종 건설정책연구실장 참여 - 실무 TFT에서 마련한 계약제도 개선관련 중간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한 자문 수행

■ 신규 연구과제 발령 현황

제목	주요 내용
인건비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진단 및 주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와 건설산업의 인건비 및 생산성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건설산업의 시간당 인건비와 생산성의 국가 간 비교, 향후 경제발전(소득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생산성의 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재개발분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발표된 정부대책 및 「도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입자보상의 합리성과 적정성, 분쟁조정시스템의 현실성, 공공의 재개발사업 참여 확대 등 비교 분석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재개발사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모색
4대강살리기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발표에 따라 4대강살리기사업의 주요 내용 정리 4대강살리기사업 확정에 따른 지역별 건설산업 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타 연구원 활동현황

- ‘2009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오는 6. 25(목),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09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제1주제인 ‘2009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은 이홍일 연구위원이, 제2주제인 ‘2009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은 김현아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할 예정. 이후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강·하천정비사업의 논쟁과 투쟁

예상되던 일이지만 ‘4대강·하천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와 동시에 반대 투쟁이 일고 있다. 4대강·하천 살리기는 전국의 강·하천을 살려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국민 생활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강·하천 살리기보다 죽이기, 환경복원보다 파괴 등 정부 목표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약 22.2조원의 사업비를 두고도 반대 주장이 거세다. 국가재정 투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래식 토목사업보다 국가 IT 인프라에 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크면서 전국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을 가질 수 있는 강·하천 살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 주장을 짚어보자. 물길을 복원해 수자원과 수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정비된 한강에 유람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운하로 봐야 하는가? 한강변 고수부지는 자전거 길과 운동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이 밤낮으로 찾아드는 주요 생활공간으로 변신했다. 성남과 과천에 이르는 탄천·양재천 변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걷기 및 자전거 길로 정비됐는데, 이를 두고 환경 파괴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국의 강·하천을 있는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이 자연 그대로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강의 깊이를 6m까지 내려 파는 것을 대운하건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4대강 살리기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깊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깊게 파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운하와 연결 짓는다.

3년간 22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면 연평균 투자액은 7.4조원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 피해복구와 예방 등에 4.2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추가비용은 연간 3.2조원 정도다. 매년 4.2조원의 복구비를 낭비하기보다 3년 동안 집중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홍수피해를 줄여나가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선택적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강·하천 살리기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주장도 있다. 강·하천 정비 사업은 육상 건설과 달리 계절적 영향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공사기간이 길수록 홍수·장마피해로 인하여 건설 중 피해 복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하천 살리기의 참된 의미를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2009. 6. 12>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